

택배노조, 설 연휴 뒤 부분파업 예고

택배료 인상분 택배기사 처우개선 투입 요구 “CJ대한통운 협상 거부 땀 투쟁 강도 높일 것”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설 연휴 뒤인 오는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 연휴 기간의 국민 불편을 고려해, 정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여명이 설 연휴 이후인 1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며 “CJ대한통운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투쟁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CJ대한통운 본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인상한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활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박스당 122원 플인 택배요금 인상

분 중 배송기사의 수수료 인상액은 고작 4~5원, 월 2~3만원 수준에 그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후 CJ대한통운본부는 지난 9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와 16일 CJ대표자회의를 잇따라 열고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했다.

이들은 경우값과 물가 상승으로 택배기사들의 실질임금이 줄어 들고 있다며 “계속되는 실질임금 삭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교섭이 필요하지만,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은 원청은 ‘계약 관계가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택배 노동자

들이 노동3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 기사들도 실질임금 삭감 보전을 위한 교섭구조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CJ대한통운 원청은 즉시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결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양금덕 할머니 훈장 보류, 日 눈치 본 정부 부처 합심 결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할머니의 국민훈장 수상에 제동을 건 것은 외교부의 단순 일탈 행위가 아닌 일본의 눈치를 보는 정부 부처들의 합심에 따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받은 대한민국 인권상을 반납,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또 양 할머니의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전남소방, 지난해 화재 61.5% ‘부주의’ 발생...30명 숨져

2022년 2925건 발생...352억 4900만원 재산피해

전남소방본부가 2022년 발생한 화재 분석 결과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0건 중 6건을 차지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지난해 발생한 화재 2925건 중 61.5%(1800건)가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전기 19.7%(578건), 기계 8.2%(240건), 원인 미상 5.0%(147건), 화학 1.4%(41건), 교통사고 1.3%(38건), 방화 0.8%(25건), 제품 결함 등 기타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소방본부는 지난해 3만3342건의 화재신고를 접수해 2925건의 화재를 진압했다.

이 화재로 30명이 숨지고 7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52억 4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건수는 2021년(2473건)보다 28.3%(452건) 늘었고, 인명피해는 16.3%(14명), 재산피해는 60.3%(132억 6천100만 원) 각각 증가했다.

화재 증가 원인은 부주의가 61.5% 전년보다 32.3%(1361건) 늘어났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공장 등 비주거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801건으로 전체의 27.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주거시설 533건, 인야 401건, 차량 302건, 선박 41건 순 등



이었고, 쓰레기 등 기타 화재도 844건이나 됐다.

김조일 전남소방본부장은 “통계자료는 소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설정을 위한 지표가 되는 만큼 화재 통계를 면밀히 분석해 화재 예방과 대응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설 명절 뉴시어선 1.7배 ↑ 전남도, 사고예방 강화

전남도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7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뉴시어선 안전 취약요소를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사고 이력이 있는 관내 뉴시어선 40척이다.

전남도와 연안 시·군, 해양, 해양교통안전공단, 낚시단체 등과 함께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출항 전 안전점검 실시·비상대응 요령 안내, 구명조끼 착용, 승선자명부 작성과 신분증 대조 확인 여부 등이다.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안전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설 연휴를 포함한 전후 기간은 뉴시어선 이용객이 평소보다 약 1.7배 증가하는 시기다.

전남도는 최근 낚시에 대한 관심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낚시어선 이용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적발 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낚시어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기관 손상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국내 다수 낚시어선이 사용 중인 주요 엔진 정비 매뉴얼도 제작·배포한다. /뉴시스

광주시 설 교통대책...518번 버스 증차

광주송정역·터미널·영락공원 등 교통지도 강화
오늘부터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 완화

광주시는 설 연휴기간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자치구에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지도와 국·시립묘역 주변 시내버스 증차 운행,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귀성객과 성묘객을 안전하게 수송한다.

연휴 기간 망월·영락묘지가 정상 운영되는 만큼 성묘객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구 공무원, 경찰, 모범운전자회 100여 명이 일대 교통정리와 주·정차를 지도한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광주송정역 주변에서도 모범운전자회 150

여 명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교통지도 활동을 펼친다. 명절 연휴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 시내버스 운행도 확대한다.

상무지구~종합버스터미널~영락공원을 운행하는 518번 시내버스는 하루 28회 증차 운행한다. 지월15번과 용전86번은 노선을 조정, 성묘객의 이동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질서 유지·안전을 위한 교통지도는 강화한다. 공영주차장 300여 곳은 무료 개방한다. 해당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 공공데이터포털, 카카오톡, 네이버맵에서 제공한다. /조일상 기자

광주 119종합상황실, 연휴기간 비상근무

응급의료상담 접수대 증설·전문 의료상담 인력 보강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설 연휴 기간 전후 119종합상황실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

지난해 설 연휴 5일과 추석 연휴 4일 간 광주지역에 접수된 119신고는 각각 4506건(1일 평균 901건), 4284건(1일 평균 1071건)으로 연간 하루 평균 895건보다 각각 6건(0.7%), 176건(19.7%)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의원, 약국 안내 등 응급의료상담은 설과 추석 연휴기간 하루 평균 각각 226건, 303건으로

평소 140건보다 약 2~3배 이상 많았다.

이에 119종합상황실은 설 연휴 기간 중 신고폭주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해 119신고접수시스템과 경찰 등 재난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사전 점검하고 근무인력 보강 및 신고접수대를 증설 운영한다.

특히 18일부터 병·의원, 약국 안내 등 응급의료상담 접수대를 기존 2대에서 4대로 증설하고 전문 의료상담 인력을 평소 3명에서 5명으로 보강해 응급의료상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조일상 기자

LH 광주효천2 지하차도 설연휴 전 임시개통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7일 ‘효천2 지하차도’를 설연휴 이전인 18일 오후부터 임시개통 한다고 밝혔다.

‘효천2 지하차도’는 하루 6만 7000여대 차량이 이동하는 행안교차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길이 563m,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됐

다. LH는 효천1·2지구 조성과 함께 지난 2020년 6월부터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지하차도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 구조물공사 특수공법을 도입, 단계별 교통차단계획 등을 추진했으나 차로수 감소로 인한 교통난은 불가피했다. 이번 공사는 지하차도(4차로) 구간과 상부 도로(4차로)로 진행됐으며 설 명절 이전 공사가 완료된 지하차도 구간부터 임시개통한다. /권형안 기자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래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